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18. 12. 7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중 동

- 국제동맹군, 美인질 참수살해에 관여한 ISIS조직원 제거
  - 12.3 美 시리아 담당특사는 자신의 SNS 계정에 “국제동맹군이 시리아 남동부에서 美軍 출신 구호활동가 「피터 캐식」\* 등 인질살해에 관여한 ISIS 지휘관 「알-우마라인」 등을 정밀 공습해 제거했다”고 발표
    - \* ISIS에 의해 납치된 3번째 미국인으로 '13년 시리아에서 납치된 후 이듬해 참수살해
- 美항모, 'ISIS 잔존세력 소탕' 위해 페르시아만 재배치
  - 12.3 美 WSJ는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, '존 C. 스테니스' 항모 전단이 8개월 만에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며, △이라크·시리아內 ISIS 잔존세력 소탕전 △이란에 대한 무력압박 △아프간內 공습 강화 등의 목적으로 분석

#### 아·태평양

- 한국 인천지법, ISIS추종 시리아인에게 징역 3년 선고
  - 12.6 인천지법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지인들에게 ISIS 가입을 권유하는 등 '테러방지법 위반'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(33세·남)에게 징역 3년을 선고
    - \*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同人에게 징역 4년을 구형
- 탈레반, 美의 아프간 공습으로 고위사령관 사망
  - 12.3 아프간 현지 언론은 2일 미국이 무인기(드론)를 이용한 공습으로 「압둘 마난」 탈레반 헬만드주 사령관을 포함해 탈레반軍 32명이 사망했다고 「나지브 다니쉬」 내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

## 미 주

### ○ 캐나다, 인종·종교 등 관련 증오범죄 급증

-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, '17년 캐나다의 증오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64% 급증한 2,073건으로 △동기별로는 인종·민족 878건(32% ↑), 종교 842건(83% ↑), 성적성향 204건(16% ↑) 등이며, △대상별로는 무슬림 349건(151% ↑), 유대인 360건(63% ↑), 흑인 321건(50% ↑) 등으로 분석

### ○ ISIS, 크리스마스 토론토 테러 위협 포스터 온라인 배포

- ISIS 선전매체는 온라인을 통해 토론토 도심광장에 칼을 들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·크리스마스 트리·수류탄이 묘사된 포스터를 배포하며 테러 위협

\* 포스터에 '우리가 너희의 크리스마스에 너희의 피를 칠할 것이다.'라는 문구 게재

### ○ 美 금융당국,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금융거래 차단 위한 대책 촉구

- 12.3 美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등 5개 정부기관은 공동성명을 통해, "금융기관들이 북한·이란 등과 관련된 테러자금 조달 및 기타 불법금융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"고 촉구

### ○ 美, ISIS에 물질적 지원을 시도하던 미군에게 25년형 선고

- 12.4 미국 하와이 법원은 작년 7월 FBI의 위장수사로 체포된 미군 (35세, 중사)에게 군복무 중이던 '16년경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에 심취하여 ISIS에게 군사비밀·드론·군수물자 등을 지원하려던 혐의로 징역 25년 및 보호관찰 20년을 선고

\* 同 사건은 하와이에서 테러지원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

예멘 국방부청사 대상 차량폭탄·총격테러

- '13.12.5 테러범 12명이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국방부청사 단지 차량 폭탄테러 후 청사 안에 진입해 총기를 난사(56명 사망, 200여 명 부상)
- 테러범들은 청사內 군병원을 점거하고 외국인 의료인 대상 총기를 난사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으나, 이들은 경비대원들에 의해 전원 사살
- 예멘 알카에다(AQAP)는 언론담당 트위터 계정을 통해 ‘예멘 국방부가 청사 단지內 미국 드론 통제실 및 美측 전문가를 배치한 사실을 확인해 공격을 감행했다’며 테러배후를 자처
  - \* 이슬람국가들과 전쟁 중인 미국의 사무실은 적법한 공격대상이라고 언급
- AQAP는 예멘 정부군의 대규모 소탕작전과 미군의 지속적인 드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멘軍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

< 알-카에다 (Al Qaeda) >

- (결성배경) ‘기지(The base)’라는 의미로 1988년 아프간 전쟁시 구소련의 철군으로 전쟁이 종식되자 「오사마 빈라덴」, 「알 자와히리」 등이 對서방 지하드 존속을 위해 당시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하여 결성
- (전개) 對서방 자폭테러 및 요인 암살 등 극렬 테러행위를 일삼다 '01년 9·11 테러를 감행하였으나 '11.5 지도자 「빈라덴」이 사살된 이후 세력 약화
- (최근동향) '14.2부터 ISIS와 상호 주도권 경쟁 중이며, ISIS가 연합군의 공세로 수세국면에 몰리자 세력재건 및 존재감 과시를 위해 「빈라덴」의 아들 「함자 빈라덴」을 전면에 내세우며 테러선동 강화추세